

“포교는 하면 할수록 매력있다”

제6대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포교는 환희와 놀라움, 감동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제6대 포교원은 경이적인 놀라움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포교를 해나갈 것입니다.”

제6대 포교원장으로 임명된 지원 스님이 11월 26일 취임식을 앞두고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포교원의 지표를 밝혔다. 스님은 “출가해서 마지막으로 득도한 후, 회향하는 기분으로 임기를 보내겠다”며 “백척간두진일보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맡은 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선수가 99%만 노력해서는 1등을 할 수 없듯, 마지막 1%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임기를 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원 스님은 5대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진행해 왔던 기존의 정책들은 빠짐없이 6대에 이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5대에 미처 진행하지 못했던 미디어 포교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공간을 초월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드라망’ 역시 현대에 사용되는 소셜네트워크(SNS)와 같은 맥락입니다. 2012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지원 스님은 이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스님은 불자들을 비롯한 신도단체회원들과 1만명 팔로워 맺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스님은 “포교도 시대와 계층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 포교원 중도들을 비롯해 포교원 산하 단체가 소통이 돼야 한다. 이 시대야말로 포교하기 가장 쉬운 시대이다. 소통이 되면 포교가 자연스럽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종단에서 2-3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내놓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계층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소통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원 스님은 사회에서 대두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불교가 책임의식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이혼, 자살, 알코올중독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불교계가 앞장서야 한다. 이런 문제를 근절할 때 불교계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30여 년 가까이 현장에서 포교활동을 진행해 왔던 지원 스님은 자신이 포교현장에서 가장 잘한 일로 ‘어린이·청소년 범회’ 개설을 꼽았다. 30여 년 전 처음 15평짜리 임대법당에서 포교를 시작했던 스님은 “처음에는 포교의 ‘포’ 자도 몰랐다”고 말했다. 스님은 인근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며 불펜으로 직접 쓴 ‘공부 잘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내용의 전단지들을 학생들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3명의 학생들이 법당을 찾았다.

“백척간두진일보” 하는 마음가짐 지킬 것
제6대 포교원은 미디어 포교에 중점둘 것
포교는 감동과 놀라움이 있어야 완성됨
가려운데 끊어주는 꼭 필요한 포교하고하

“학생들에게 진짜 공부 잘하는 비법을 알려준 것은 아니었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정신을 만들어 줬습니다. 스님들이 강원에서 교육받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교육시켰습니다. 정신집중을 가르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매일 108를 했습니다. 그러자 반에서 30등 하던 학생이 10등을 하고, 그렇게 아이들 성적이 올랐습니다. 점차 입소문이 퍼져 1984~1985년도에는 100명의 아이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스님은 그 후 15평 짜리 법당에서 50평짜리 법당으로 옮기게 됐다. 아이들이 점차 모이자 학부 모들도 함께 스님의 법당을 찾았다. 그 계기로 삼보사와 육지장사가 창건됐다.

스님은 “어린이범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다”고 회고했다. 임대료를 낼 돈이 없어 겨울에 중부시장에서 가정집을 돌아다니며 김을 팔기도 했다. 스님은 “부처님께서도 길에서 전법을 시

작해, 길에서 생을 마쳤듯이 포교는 직접 찾아다니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스님은 어린이·청소년 포교 외에, 문화포교에도 힘썼다.

“삼보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서 1994년도에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지방순회공연을 다녔습니다. 당시 100여 명의 어머니합창단과 30명의 관현악단을 구성해 3년 동안 공연을 다녔습니다. 가수는 사람들에게 노래로서 순간 감동을 줍니다. 문화포교야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감동을 줄 수 있는 포교 중 하나입니다.”

당시 스님은 이런 공연들을 통해 찬불가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지원 스님은 “나이가 들어도 포교할 때 가장 마음이 설렌다”며 “하면 할수록 매력 있는 것이 포교다.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포교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종단에서 실행하고 있는 ‘자성과 해신’ 5대결사가 포교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11월 14일 제6대 포교원 집행부를 구성했다. 포교부장에 송묵 스님을 임명했으며, 신도국장에 범상 스님, 포교연구실 사무국장에 해안 스님을 임명했다. 포교연구실장에 범상 스님, 포교국장에 남전 스님은 유임됐다.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포교원장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전법홍포에 매진하겠다”며 “앞으로 날마다 좋은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교연구실장 범상 스님은 “환희롭고 경이로운 포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한 후, 원광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경기지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신도국장 범상 스님은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법천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해안 스님은 울산사암연합회 부회장, 울산불교대학 사무국장 등을 맡고 있다.

글=이은정 기자 soe84@naver.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hanmail.net



지원 스님이 창건한 육지장사는 ...

지원 스님은 1964년 범어사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0년 통도사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범어사 강원졸업, 동국대 행정대학원 졸업 등을 졸업했다. 이후 조계종 총무원 교무국장, 포교국장을 역임했다. 1991년 삼보사를 창건한 이후, 1999년 육지장사를 창건했다.

지원 스님은 현재 육지장사 회주를 역임하고 있다. 육지장사는 양주 도리산에 위치한 사찰로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육지장보살을 모신 지장도량이다. 천상계와 인간계, 아수라계와 축생계, 아귀계와 지옥계 등 육지장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도량이라는 의미이다.

특히 육지장사는 비만·만성피로 등을 해결하는 체형형 다이어트 템플스테이, 심신개선을 위한 전문단식 템플스테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휴식형 템플스테이, 기업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성공리더십 템플스테이 등 이색 템플스테이로 일반불자는 물론 인기 연예인들에게도 각광을 받고 있다.

7월에는 KBS ‘미녀들의 수다’의 브로닌, 예바, 비앙카, 따루 등이 육지장사를 방문해 1박2일 동안 108배, 발우공양, 명상, 쑥뜸체통 등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지원 스님은 “육지장사의 템플스테이는 1700년 전통을 이어온 산사의 건강법을 현대인의 근기에 맞게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불교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통해 현대인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어 가장 좋은 포교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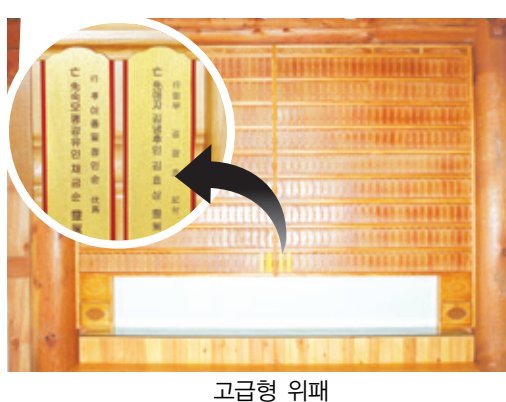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아름다운등



팔각점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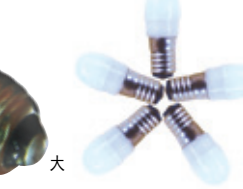


중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LED 전구



LED 전구